



년전의 모신문의 특파원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쓴 기사가 생각난다.

기자가 택시를 대절하여 예루살렘의 고적을 구경하다 뒤편에 느닷없이 택시 운전수가 물었다.

“C or P?”(C냐 P냐?)

“그게 무슨 뜻이냐?”

“아 모르시는군요, 구교(Catholic)냐 신교(Protestant)냐? 묻는 것입니다.”

“네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신교고 구교가 없습니다”하고 웃으면서,

“실은 C냐 P냐 묻은 것은 코카콜라(Coca Cola)를 마시겠습니까? 혹은 펩시콜라(Pepsi Cola)를 마시겠습니까?고 묻는 것입니다”라고 다시 물었다.

기자는 또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하니까,

“네 역시 명답이군요. 둘다 콜라니까요!”

하고 대답하더라고 한다. 물론 이는 여행중에 일어난 단편적이며 계속되는 얘기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료업체는 묘하게 C와 P로 표현되는 배합사료공장이 있다. 이스라엘 운전수와 같이

“C냐 P냐?”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C가 더 좋으냐 P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면 말이다. 그러

### C. P 는 쟁

나 우리는 양쪽 다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통적인 것도 있다.

지금같은 단미사료원료가 부족되어 사료질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치는 시기에는 C가 더 좋으냐 P가 더 좋으냐고 따질 때가 어리석었다고 더욱 절실히 느껴질때가 있다. 요즘에는 C나 P보다 D가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편견일까?

생각해 볼 문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병아리 예약 때문에 왔는데요?”

“5월 이후것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3월 것 안될가요?”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

각 부화장에 잠깐만 앉아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대화이다.

어쨌든 모든 부화장의 부화기에는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고 뽕뽕 소리를 내는 것은 틀림없다.

지난 2년간의 부화업체의 불경기가 작년말부터 풀려나는 것은 다행한 일이긴 하겠으나 (양계업자도 같은 추세지만) 부화장의 경기가 너무 좋으면 결국 그 결과는 몇번 경험한 불경기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초생추의 부족으로 인하여 군소 부화장까지도 가동이 되어 병아리의 과잉생산으로 불경기를 곧 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의 도입, 국내 종계 분양을 통제하고 사료의 도입량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때일수록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병아리의 선택은 물론 지나친 육수에 의한 무리한 숫자의 육추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수출시장도 열려 있고 재래의 사양 방법이 아닌 배합사료에 의한 양계와 같은 양돈도 생각해 볼만하다. 물론 양돈분이 분지 오랜 것을 모르는 양계업자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양계의 불경기의 위기를 분담하는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만하다. 그래서 누가 “C냐 P냐?” “C가 더 좋으냐 P가 더 좋으냐?”고 물을 때 “C(Chick 병아리)도 좋고 P(Pig 돼지)도 좋다”고 즐겁게 대답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위의 C사료 P사료논쟁이나 C/P(칼로리·단백질 비율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P: 종계(Parent Stock)의 숫자가 많아져 불경기가 되었다는 C: 초생추(Commercial Chick)를 너무 많이 길러서 생산과잉이니 하는 또 다른 C: P논쟁은 필요없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즐거운 C(양계), P(양돈) 논쟁은 양계업자가 직접 유도해야 하겠다.